



기업들, 베리사인인 자국어 도메인(IDN)을 이용해 온라인 브랜드 향상

*한국의 가비아, 한강, 아이네임즈, 알지네임즈, 예스닉 등
세계 40 여 파트너사가 베리사인의 IDN 적극 보급 중*

2003년 1월 14일 서울 - 세계적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업체인 베리사인은 오늘 비영어권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들이 선택한 언어로 웹 항해와 이메일 송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웹 기반 내비게이션(Web-based Navigation)과 i-Nav™ 플러그인 서비스 등 2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다. 가비아, 한강, 아이네임즈, 알지네임즈, 예스닉 등 선도적인 한국 인터넷 업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는 이 2가지 서비스는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한글로 입력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일단 레졸루션(resolution)이 끝나면 사용자들은 앞으로 그 도메인을 계속 한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이트를 북마크 해놓을 수도 있다.

기업들이 닷컴(.com)과 닷넷(.net) 도메인을 자국어로 등록함으로써 자국어로 그들의 브랜드 명칭을 프로모션하면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계 40 여 파트너사가 비영어 문자들을 이용해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는 자국어 도메인(IDN)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IDN은 사실상 모든 비영어 문자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350 개 언어를 지원할 수 있다.

웹 기반 내비게이션은 베리사인이 관리하는 세계 13 개 DNS 서버 로케이션에 설치되었으며,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세계 어디서나 어떤 언어로든 .com 과 .net 도메인을 항해할 수 있게 해준다. 웹 기반 내비게이션과 짝을 이루는 i-Nav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같은 유명 브라우저 프로그램들, 또한 아웃룩(Outlook)과 아웃룩 익스프레스(Outlook Express) 같은 이메일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위한 완벽한 다국어 경험을 제공한다. i-Nav는 현재 .com, .net 과 기타 국제 도메인들 뿐만 아니라 .kr, .jp 같은 최상위 도메인들도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모든 국가 도메인들(ccTLDs)과 최상위 도메인들(gTLDs)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스티 루이스(Rusty Lewis) 베리사인 글로벌 레지스트리 서비스(VeriSign Global Registry Services) 운영 부사장은 “지금까지 기업들은 영어 도메인만을 이용해서 그들의 브랜드를 표시해야 했다” 며 “우리는 한국의 주요 인터넷 회사들과 협력하

여 영어의 인터넷 지배력을 허물고 엔드 유저들에게 한글을 비롯한 사실상 모든 다른 언어로 웹을 항해하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IDN의 즉시 제공을 통해 가비아, 한강, 아이네임즈, 알지네임스, 예스닉 등 선도적인 한국의 도메인 등록 대행 기관들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의 혜택과 참된 가치를 얻을 수 있게 해주며, 궁극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완벽한 웹 액세스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터넷 이용이 급성장하고 있다. 2002년 가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5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제자리에 머물기 시작했다. 입소스-레이드 스터디(Ipsos-Reid Study)가 발표한(2001. 5. 21) “웹의 얼굴(The Face of the Web)”이라는 제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어를 중심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 10명 중 9명은 자국어 이용을 로컬 정보 획득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가 더 많기 때문에 IDN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홍국 가비아 대표는 “IDN은 인터넷을 위한 중요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고객들은 그 동안 IDN을 요구해왔으며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IDN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 사이트들을 방문하기 더 쉽게 해준다. 우리는 IDN이 수익성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박채규 한강 대표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한글 도메인을 사용해서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IDN이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는 베리사인과 협력하여 IDN 서비스를 현실화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IDN 시장은 영어도 시장 못지 않게 큰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청중 예스닉 대표는 “인터넷 역사상 정말 혁명적인 시기다. IDN은 우리의 소중한 고객들에게 최상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인터넷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고 말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i-Nav 소프트웨어는 마우스 클릭으로 쉽게 설치될 수 있다. 일단 설치되면 모든 IDN들이 사용자 시스템에 리졸브(resolve) 된다. 사용자들은 www.idnnow.com을 방문하여 무료로 i-Nav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이 사이트는 베리사인이 사용자들을 교육시키고 IDN의 채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 사이트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그리스어, 헤브루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i-Nav 소프트웨어를 보여주고 있으며 IDN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베리사인은 또 2003년 2월까지 이 웹 사이트를 브라질식 포르투갈어, 불어, 덴마크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번역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가비아에 대해

가비아는 도메인 등록, 웹 호스팅, 맞춤형 웹사이트, 그리고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나 단체의 인터넷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1999년 10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에 IDN 등록 대행 파트너로 공인 받았다. 한국 제 2위의 도메인 등록 대행사이기도 하다. www.gabia.com

한강 시스템에 대해

1993년에 설립된 한강 시스템은 도메인 등록 서비스, SSL 인증, 케이블 TV 빌링 시스템 및 기타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 IDN 등록 사업을 시작했다. www.doregi.com

예스닉에 대해

예스닉은 2000년 1월에 설립되었고, 2000년 11월에 IDN 등록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 최대 규모, 아시아 두 번째 규모의 도메인 등록 대행사이다. 다양한 리셀러와 기업 고객들을 통해 B2C 직접 도메인 등록과 B2B 벌크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ww.yesnic.com

아이네임즈에 대해

아이네임즈는 2001년 4월 18일에 설립되었고(“I”는 “Internet”을 의미), 2002년 12월에 IDN 등록 대행 파트너로 공인되었다. 원래 KRNIC(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한 조직으로 출발했다가 .kr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기업으로 변신하였다. 현재 도메인 등록, 웹 호스팅, WILS(웹 이미지 링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www.i-names.com

알지네임스에 대해

알지네임스는 1985년 설립되었으며 사업분야는 광고, SI, 통신, 인터넷 등이다. 매출규모는 200년 830만 달러, 2002년 750만 달러이다. www.rganames.com

베리사인에 대해

베리사인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상거래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리사인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는 하루 수십억 건의 네트워크 접속과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토대로 웹 프레즌스 서비스, 통신 서비스, 보안 서비스, 지불 서비스 등 4대 핵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성 있는 상거래 및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베리사인에 대한 추가 정보와 뉴스는 www.verisign.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오길비 PR: 이재철, peter.lee@ogilvy.com, +82-2-3468-2943, +82-18-311-7883
베리사인 PR: Aparna Choudhari, achoudhari@appliedcom.com, +1-415-365-0222
베리사인 IR: Steven Gatoff, sgatoff@verisign.com, +1-650-426-4560
가비아: 김병남, vinssy@gabia.com, +82-2-829-3535
한강시스템 : 김동욱, hawkim@hangang.com, +82-2-597-1162
예스닉: 이용호, jase@yesnic.com, +82-2-3484-4739
아이네임즈 : 박영일, yipark@internetnames.co.kr, +82-2-559-1224

알지네임즈 : 주철민, gino@rgnames.co.kr, +82-2-588-5678
